

신간안내

▶ 공연/전시 안내 ◀

《한국 벤처의 현실과 미래》

곽관규 작

테헤란밸리가 벤처산업의 메카에서 사채업자의 메카로 바뀌고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아직 그곳에 등지를 들고 있는 벤처기업이 적지 않지만 마치 벤처산업이 궁지에 몰려 어디론가 실종됐다는 느낌을 품게 한다.

그러나 벤처는 아직도 건재하다. 디지털 단지로 변신한 구로동에서, 대덕 연구소에서, 또 어느 조그만 건물 한 구석에서 여전히 신기술 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다. 신화 만들기·영웅 창조식의 벤처 여론몰이가 사라졌을 뿐 벤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올해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서 씨앗을 뿌리고 땅을 고른 벤처육성책의 바톤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산업을 한번쯤 되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년 동안 벤처의 성장, 소멸을 지켜보며 혹은 벤처의 탄생을 위해 산과파위에 서기도 했던 전문가 곽관규씨가 벤처산업을 위한 종합 선물세트를 내놨다. 최근 출간된 《한국 벤처의 현실과 미래》(전자신문)는 벤처산업의 거울이자 이정표와도 같은 책이다.

데이콤, 삼성SDS, 삼성전자 기획실 등 IT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저자는 벤처인큐베이팅 회사인 이아이피오를 거쳐 현재 벤처투자회사인 젠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접목해 IT벤처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저자는 한때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식 벤처와 신경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그 큰 물결 속에 편입됐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현 상황에서 출발한다.

1998년과 1999년의 아주 강렬했지만 한 여름 밤의 꿈같은 벤처 호황기가 끝나고 시작된 혼란상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우리가 배운 미국식 벤처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벤처 사이의 간극, 새로운 벤처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두고 빛어지는 여러가지 갈등현상도 드러내고 있다.

문의 : 전자신문(02-2168-920)



[공연] 서울시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서울시향의 신진 지휘자 성기선(국 줄리어드예비학교 교수)과 첼리스트 데이빗 코헨(23)이 함께 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성기선은 미국의 줄리어드와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시카고 심포니의 수습지휘자로도 활동했다. 슈베르트의 걸작 '미완성교향곡', 밝은 분위기가 넘치는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 등을 들려준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수석 첼로연주자인 코헨은 친근한 멜로디로 유명한 파가니니의 '로시니 이집트의 모세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로 신년의 기쁨을 선사한다.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간주곡,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 간주곡 등도 준비했다. 젊은 음악가들이 꾸미는 활기찬 무대가 될 것이다.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 02-399-1630

[전시] 일렉트릭파워전



전기와 미술이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로 만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일렉트릭파워전'은 조명이나 전동기를 이용해 작품에서부터 복잡한 컴퓨터 영상과 가상현실을 연출한 작품이 전시된다.

김주호의 '유쾌한 날'은 나무 철판 합성수지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인물 조각. 센서를 부착해 관객이 다가서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준다. 안광준은 스크린에 레이저빔을 쏘는 작품 '객체'를 내놓았다. 관객이 입체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기일은 철제 로봇에 조명을 쏘는 '프로파간다'를, 이용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양복 차림의 남자가 바다 속을 걸어가는 영상 작품 'Stimming out'을,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간의 골격을 만든 뒤 확대하거나 흐트러뜨린 영상 작품 'man-deform'을 보여준다.

이밖에 백남준을 비롯한 출품작가 13명은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디오, 영상예술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2월 16일까지. 서초동 한전프라자갤러리

문의 : 02-2055-1192